

“제적명령·보충역편입’ 공무담임권 침해”

김태복장군, 취소심사 청구

불기협 국방장관 간담요청, 동산불교대 학생회 특별사면 청원



◀14일 김태복 장군이 국방부에 제적처분 취소심사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김태복 장군의 명예회복 시한이 한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구명 운동이 바빠지고 있다.

김 장군은 석탑 현물 시주가 뇌물로 둔갑한 사건과 관련 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근거 국방부는 3월 25일자로 김 장군에게 제적 명령 및 보충역 편입 조치를 취했고, 김 장군은 9일 이 같은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장군은 14일 ‘제적 명령 및 보충역 편입 조치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앞으로 제적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청구서에 김 장군은 “국방부가 군 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적명령 및 보충역에 편입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 규정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이것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장군은 △제적처분 취소의 건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 △위헌법률 심판제정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김 장군 사건과 관련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김원우, 불기협)도 국방부장관과 기자간담회를 요청하는 등

공식대응을 천명했다.

불기협은 15일 국방부에 접수한 공문에서 “본 협회는 지난 4년간 시주를 뇌물로 간주한 불자장성 김태복 장군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며,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19일까지 기자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부대내에서 법당 뿐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도 신축하려면 그 재원이 대부분 외부로부터 조달되는 상황에서 김태복 장군 건만 뇌물로 간주하는 것은 종교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우 · 남동우 기자

‘여의나루 작은축제’ 열려 3대 기금조성사업 일할

사단법인 불교아카데미(이사장 윤천수)가 미래불교를 책임질 불교인재 양성을 위해 불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과 불교 디지털교재 개발, 불교핵심인력 양성 등 3대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여의나루 작은 축제’를 개최했다.

12일 한강유람선에서 열린 행사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송광사 주지 현봉스님, 윤행하 문화관광부 중무실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아카데미는 5년간 8억원을 총 목표로 불교 미디어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3년간 1억 6천만원을 총 목표로 설정한 불교 디지털교재 개발기금은 1차로 군포교과재를 개발, 일선 군법당 등에 무료보급하기 위해 조성된다. 3년간 1억 3천만원을 총 목표로 하는 불교핵심인력 양성기금은 전문인력 연구 지원, 불교사회화 연구지원에 대해 조성된다. 후원 계좌: 국민)817201-04-000634(예금주 사)불교아카데미 남동우 기자

석굴암 유물전시관 건립 무산

문화재위 “위치·규모·본존불 모형재질 재고 필요”

경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8일 문화재위원회 7개 분과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석굴암 전시관 건립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 건립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되나, 현 건립계획(안)처럼 석굴암 경내에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시관 위치를 포함한 건립 규모, 본존불 모형 재질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문화재청 담당 공무원은 “다른 장소를 탐색해 재추진하지 않는 한 백지화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과 불국사는 석굴암 본존불에서 동남쪽으로 100여m 떨어진 위치에 본존불 모형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전시관 건립을 추진해 왔고, 2001년 10월 문화재위

원회 건조물분과의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론이 거세지자 지난달부터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해 문화재위원 전체 의견을 들어왔다.

석굴암 보존과 관람객 편의를 위해 모형 전시관을 건립하지는 움직이는 지난 70년대와 90년대 중반에도 있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

권형진 기자

또 승가사 측은 지난해 9월경 주지 상현 스님이 직접 기부금을 받고, 현재 용인에 건립 중인 복지원 건립 불사에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SK 외압 여부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돈을 받은 승가사 모신도의 계좌추적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우 기자

총무원 “장관 사과하라”, 승가사 “정상처리”

이남기 전 공정위장 10억기부 ‘외압의혹’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측에 10억원을 서울 북한산 승가사에 기부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검찰 수사내용이 알려지자, 조계종 총무원과 승가사는 18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수증을 발부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 대변인 현교스님은 “검찰

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교도와 조계종도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장과 법무부장관은 불교도와 조계종도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덕대 불교학자료실 일반공개

각종경전·밀교자료 등 자유롭게 이용

위덕대 회당학술정보원은 15일 불교학자료를 확보 이전하고, 일반인도 이용증을 발급 받으면 08시부터 24시까지 자유열람과 자료대출도 가능토록 했다.

현재 불교학연구소 소장자료는 티베트 대장경, 중화대장경 등의 경전

과 밀교 자료 등 일반자료 15,000여 권과 참고자료 5,000여권, 불교학 학위논문 2,000여권을 소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또 연구소에서 인터넷을 통한 불교학회 및 불교문화·사물관련 DB의 이용도 가능하다.

김원우 기자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의 대좌 노출 모습.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경북 문화재자료 92호)이 본래 형태를 되찾았다.

지난 2월부터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주변 2차 발굴조사를 벌여온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탁연, 조계종 문화부장은 8일 “석조여래좌상 밑에서 결구나 조각

수법이 불상 조성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대좌의 하대석을 발견했다. 석조여래좌상은 그 동안 통일신라시대에 만든 방형대석과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자연석 위에 모셔져 있어 원래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형진 기자

경기 가평일대 대규모 통일교 관련시설

매장 불교문화재 훼손우려

가평군청, 공사중단 명령

통일교 산하 재단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일대 수백만평 부지에 신학대학원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어 불교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통일교측은 송산리 일대에 청심신

학대학원 및 대학원박물관(건설부지 4만5천여평)과 청심병원(건축면적 1800평), 체육관(2만여명 수용규모) 등 수련원·노인복지시설·전원주택·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환경운동연합과 문화연대측은 “송산리 일대가 ‘절터골’과

‘장승백이’ ‘미사리(彌沙里)’ 등의 지명이 있어 불교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 이전에 당연히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할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산리 지역은 팔당 상수원과 가까운 곳으로 상수원 오염 및 자연 훼손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통일교 재단측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을 일축했다.

한편 공사 허가관청인 가평군청은 문화연대 등의 항의를 받고 10일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일엽스님 문학세계 조명 여성문학인회, 세미나

일엽(1898-1971) 스님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세미나가 26일 오후 4시 서울 플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열린다. 이번 ‘제8회 작고여성문인 문학재조명 세미나’에는 일엽 스님의 아들 일당 스님도 참석해 추억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시인 한분순(한국여성문학인회 사무국장) 씨가 사회를 맡고 시인 신달자(명지대 교수) 씨가 ‘신(新)여자 김일엽의 파격과 종교적 귀의’를, 평론가 김현자(이화여대 교수)씨가 ‘자유의 길, 구

도의 글쓰기’라는 주제논문을 발표한다. (02)365-6669 여수경 기자

대구에 보은노인요양원
진각복지재단, 내달개원

진각복지재단이 5월 중순에 설비노인요양원을 개원한다. 이번엔 문을 여는 대구보은노인요양원은 대구시 서구 원대3가에 위치한 옛 진각종 지정심인당을 개·보수한 것이다.

대구보은노인요양원은 연건평 124평 지상 2층 규모로 생활방, 물리치료실, 목욕탕 등이 들어서며, 대구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31명이 입주하게 된다.

김철우 기자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신변, 성남, 분당, 수지, 구서,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택시
1588-5532



Lotus Lantern Festival 燃燈祝祭 Lotus Lantern Festival

불기 2547(2003)년

등 전시회
봉은사 5월2일~8일

연등놀이
인사동 우정국로 5월3일 오후7시

불교문화마당
조계사 앞길 5월4일 12~8시

어울림 마당
동대문운동장 5월4일 4시30분

제등행진
동대문-조계사 5월4일 오후7시

대동한마당
우정국로 5월4일 오후 9시30분

연 등 축 제

5월 4일(일) 종로는 연꽃세상



봉축위원회 Tel. 02)725-6641 www.LLF.or.kr

